

‘탄소·수소 융합’ 수소경제 주도

탄소융합기술원, KC 테크 데이 개최
연료전지용 탄소담지체 특성 등 발표
첨단기술개발 시너지 효과 발휘 기대

전주시가 미래먹거리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에 지역전략산업인 탄소융합기술을 융합해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시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윤혁)은 18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2019 탄소와 수소의 융합축진을 위한 KC Tech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전지차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의 부품소재로 탄소소재가 활용되고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고압 압력용기를 제작할 때도 탄소섬유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KC Tech Day는 시와 기술원이 지난 해부터 진행중인 기술 컨퍼런스로 기술원이 보유한 탄소소재 응용기술을 관련기업과 공유함으로써 기술실용화를 촉진시키고 탄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조병통 현대자동차 상무가 '수소상용차의 기술현황 및 발전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어, △연료전지용 탄소담지체의 특성 및 요구사항 △고압 압력용기용 탄소섬유 등 연료전지용 탄소부품 및 고압 수소저장용기 개발과 관련된 총 7

건의 기술개발 성과도 발표됐다.

또한, 기술원이 보유중인 특허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4건의 보유 기술과 이미 기술이전이 완료돼 설립된 2개 연구기업의 기술도 소개됐다.

이외에도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특허출원 △수출지원 △마케팅(자금유치)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연구소기업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부서도 운영됐다.

시는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국내 탄소기업들과 수소와 탄소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만큼 향후 대한민국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이날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에서도 탄소소재는 핵심부품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소에너지 산업의 성장촉진은 물론이고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수소경제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오리 가족의 휴식

완연한 날씨를 보인 18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오리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군 적극 대응해야

전북연구원, 도내 시·군간 협력적 관리체계 마련
지원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인력 양성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8일에 처음으로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전북 해역에 대해 최초로 수립할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전북도 및 시·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현 박사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 MSP)이 해양에 대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해양 활동을 지양하고 '先 계획 後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진전된 해양계획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위계획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EEZ포함)에 대해서 시도별로 2021년까지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전북 해역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수립될 예정으로,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2019년에 비해 1년 늦게 승인·고시될 가능성이 있어 점경해역에서의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가 정부의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추진에 대해 첫째, 전남·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고시 추진, 둘째, 전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도내 지역 전문가의 참여 추진 등 대응이 필요하다.

임 박사는 해양 지주권 시대의 전북도 과제로서 첫째, 시·군 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 둘째,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셋째,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 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와 맞물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진성 기자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25일 개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이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선유도 해수욕장이 평년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25일에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탐방지원센터를 신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으며 외지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해수욕장 내 임시도로를 개설,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인도 변 산책로에는 아자매트를 깔아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개장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55일간이며 개장 첫날인

25일에는 해수욕장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군산 출신 대표 연예인 탤런트 김성환과 화제의 히트곡 천태만상의 주인공 가수 윤수현을 초청해 지역 주민과 함께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총4회)에 "한여름 밤의 선유도 영화제"를 개최해 명량, 8월의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추억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말에는 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선유도의 매력을 한껏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권고안 채택

여름에만 누진구간 확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최종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

문이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했고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영태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